

##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9.12~16)

### 1. 개각 후 대한국 정책 관련

#### 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(내각부) 아베 총리는 11일 개각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“국제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,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며, 그 방침은 새로운 (내각) 체제 하에서도 작은 먼지만큼도 변함이 없다” 고 발언<sup>1)</sup>

○ 또한 “한국 정부는 먼저 국가간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” 고 강조

- (외무성) 모테기(茂木) 신임 외무장관은 강제징용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속히 시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, 양국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<sup>2)</sup>

○ 모테기 장관은 일본기업에게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결정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

- (경제산업성) 스가와라(菅原) 신임 경제산업성 장관은 현재 한일관계 상태의 이유로 “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 하 한국 측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” 이라고 발언<sup>3)</sup>

#### 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닛케이는 한일 관계가 일본 내각부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서, 고노 외무장관을 퇴임시키는 방안도 거론되었으나 “지금 퇴임시키면 한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” 라는 생각에 고노 전 외무장관이 방위장관으로 내정되었다고 보도<sup>4)</sup>

1) 「日韓、WTO紛争処理へ—首相、韓国への対応「変わらず」。」 『日本経済新聞』 (2019. 9. 12).

2) 「茂木外相「韓国は国際法違反是正を」外交当局間の意思疎通継続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9. 13).

3) 「菅原経済産業大臣の就任記者会見の概要」 웹사이트 : <https://www.meti.go.jp/speeches/kaiken/2019/20190911002.html>

(검색일: 2019. 9. 16).

○ 고노 전 외무장관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음.

- 한편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노 전 외무장관의 방위장관으로의 재임 명과 관련, “지금 고노 장관을 내각에서 제외하면, 현 내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일 것” 이라고 평가<sup>5)</sup>

## 2. 한국인 여행 감소로 인한 영향 관련

### □ [동향]

- 일본정부 관광국은 7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가 전년동월대비 7.6% 감소(56만 1,770명)하였다고 발표

- (금융권) 호쿠요우 은행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지원할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최대 1억엔까지(7년 만기) 대출을 실시한다고 발표<sup>6)</sup>

○ 대출 상품의 명칭은 ‘관광대책 긴급융자’ 로, 한일관계의 악화로 인해 홋카이도 내 일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임.

- (지방자치단체) 쓰시마시 시장은 나가사키현 도지사에게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자금지원 및 고용대책 등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<sup>7)</sup>

○ 대마도로 잘 알려진 쓰시마시는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7,8월에만 약 10억엔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.

4) 「ポスト安倍「大いに競え」—日韓関係、世論を意識、河野氏、防衛相横滑り。」 『日本経済新聞』(2019. 9. 12).

5) 「対韓国、強硬姿勢変わらず=河野氏横滑り、継続重視—安倍首相」 『時事通信ニュース』(2019. 9. 14).

6) 「韓国人客の減少対応、北洋銀が相談窓口、全店に、融資商品も。」 『日本経済新聞 地方経済面 北海道』(2019. 9. 14).

7) 「韓国人観光客：韓国人観光客激減 「7、8月で10億円損失」 対馬市が県に対策要望 /長崎」 『毎日新聞 地方版』(2019. 9. 13).

\* 쓰시마시에 따르면 2018년 관광객수는 약 41만명이었으나, 2019년 7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약 40%, 8월에는 80%가 감소하였음.

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일본의 한 언론은 ‘관광입국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국인 여행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논평(毎日新聞).
- o 아베 정권은 ‘방일 관광객 4천만명’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음.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4분의 1이 한국인인데,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인 관광객이 계속 감소하면 정책의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.

3. 한미 정상회담 관련

□ [일본 언론 동향]<sup>8)</sup>

- 일본 언론은 미국 뉴욕에서 열릴 한·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문제가 회담의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,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·일간 대립 문제가 논의의 주제가 될지 주목된다고 보도

4. 한일 관계 여론조사 관련

□ [일본 언론 동향]<sup>9)</sup>

- NHK는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, 한일 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32%가 ‘매우 염려된다’고 답변하였으며,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는 응답자의 55%가 ‘(일본이) 양보하면서까지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’라고 대답

5. 수출규제 관련 일본 정부의 여론전

8) 「米韓首脳、国連総会を機に会談へ」 『産経新聞』(2019. 9. 14).

9) 「NHK 世論調査 内閣支持率」 『NHK選挙WEB』 웹사이트: <http://www.nhk.or.jp/senkyo/shijiritsu/> (검색일: 2019. 9. 16).

□ [일본 언론 동향]<sup>10)</sup>

- 일본 외무성은 9월부터 한일관계 악화 배경에 대해 해외 미디어 등에 알리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o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고노(河野) 전 외무장관은 블룸버그 등에 기고하였음.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아직까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, 강제징용 문제는 “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와는 관계가 없다”고 강조하였음.
- o 외무성 간부는 기고문과 관련, “최근의 한일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서 미국 및 유럽에서 평판이 좋다” “파워풀하다”라는 일부 소감도 있다고 소개함.
- 이와 관련하여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국과 같다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“사실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‘여론전’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”고 논평

---

10) 「韓国 一方的な対日批判 日本、冷静に「世論戦」」 『産経新聞』(2019. 9. 15.)